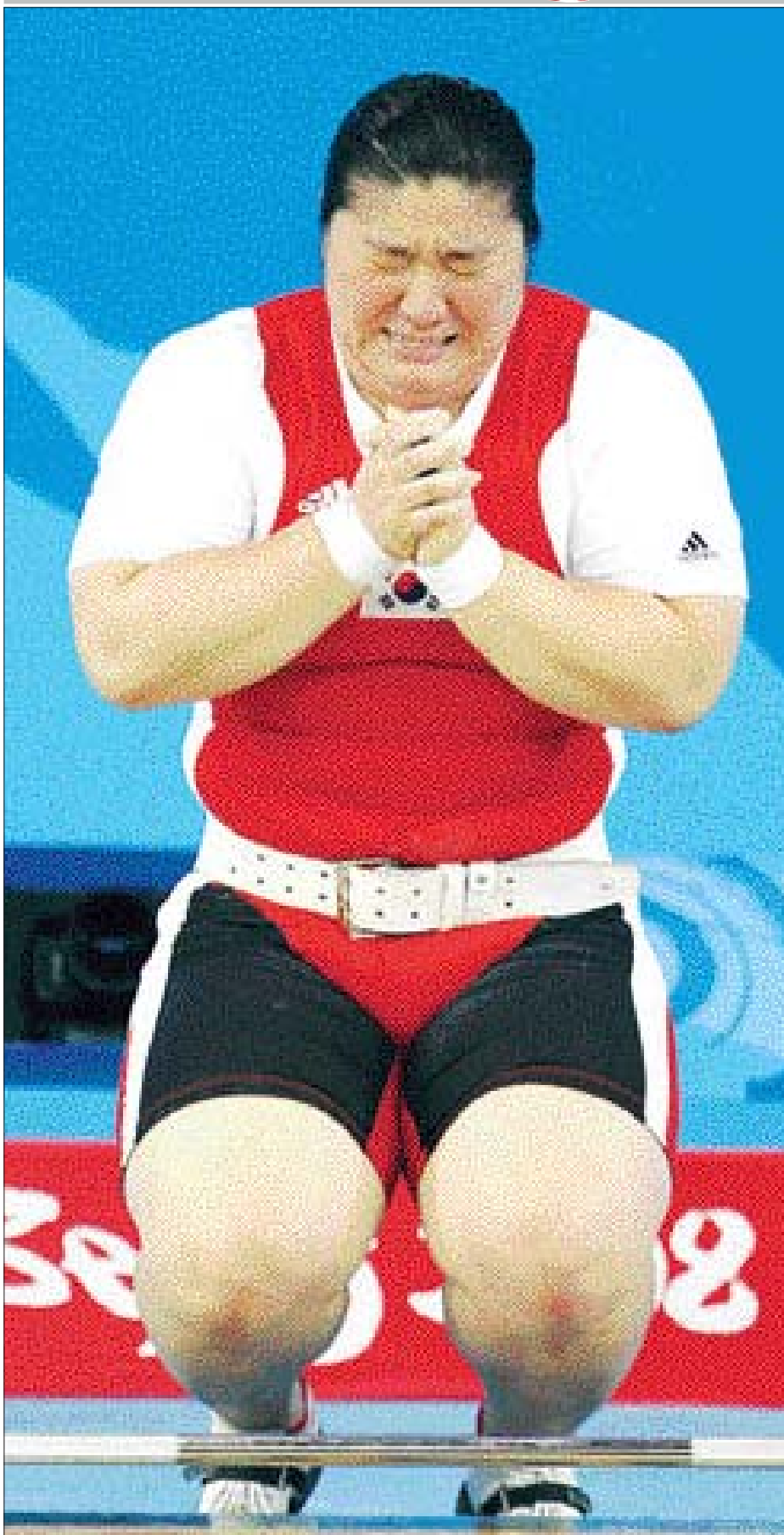


사생활 무관하다! 원상복원! 운동복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임핑 다이어스티 컨트리 클럽

- 광주·동광명IC 구간 광복동점도 완공
- (명동출발점)IC수준 프론트 개시
- 우천시 9월 이후 출발요금정산제 실시
- 예약 : www.hpdyashy.co.kr 0801-320-7700



16일 베이징 항공항천대학 체육관에서 열린 여자 역도 75kg급에 참가한 장미란이 인상·용상 합계 신기록을 세운 뒤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 다섯 차례 세계新 들어올린 ‘역도女神’ 장미란

“세계 기록 또 깨졌다”

“중국 무상상 나오지 않아 더 긴장
4년 후 런던올림픽서 2연패 도전”



역도

“기록은 항상 깨지기 마련이다. 앞으로 세계기록을 더 깨기 위해 더 많은 훈련을 하겠다.”

2008 베이징올림픽 여자 역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여자 헤라클레스’ 장미란(25·고양시청)이 다시 한번 세계신기록을 경신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장미란은 17일 낮 베이징 시내 프라이모텔에 자리 잡은 코리아하우스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세계신기록으로 우승을 해 기쁘고 만족한다. 하지만 앞으로도 세계기록을 더 깨기 위해 많은 훈련을 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미란은 지난 16일 오후 베이징항공항천대학 체육관에서 열린 여자 최중량급(+75kg) 경기에서 인상 140kg 용상 186kg을 들어 올려 합계 326kg을 기록해 우승을 차지했다.

이날 인상과 용상, 합계에서 다섯 차례 세계신기록을 수립한 장미란은 올림픽 여자 역도 사상 처음으로 금메달을 딴 주인공이 됐다.

장미란은 또 이번 올림픽에서 지난 13일 남자 77kg급 사제혁(23·강원도청)에 이어

한국에 두번째 금메달을 안겼다. 한국 역도는 1992년 바르셀로나올림픽에서 전병관이 금메달을 딴 지 16년만에 남녀 한명씩 두 명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배출하는 결경사를 누렸다.

장미란은 인상 3차 시기에서는 140kg을 들어 중국의 무상상(24)이 2006년 12월 도하아시안게임에서 세운 종전 인상 세계기록(139kg)을 1kg 늘렸다.

용상 2차 시기에서도 장미란은 183kg을 들어 탕공홍(29)이 2004 아테네올림픽에서 세운 종전 용상 세계기록(182kg)을 갈아치운 뒤 3차 시기에서는 186kg을 성공해 다시 한번 세계기록을 수립했다.

장미란은 합계 기록에서도 무상상이 보유하고 있던 종전 세계기록(319kg)도 7kg이나 높였다.

장미란은 지난 해보다 기록이 크게 향상된 점에 대해 “좌우 밸런스가 전보다 굉장히 좋아졌다. 예전에는 최고 중량을 드는데 양쪽 밸런스가 맞지 않았는데 비디오 분석을 통한 역할 조사로 자세를 조금씩 고쳐나갔다. 힙쓰는 동작부터 작은 변화를 주면서 나중에 좋은 자세가 나오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강력한 라이벌 무상상의 불참으로 ‘싱겁게 우승을 차지한 게 아니냐’란 질문에 그



세계신기록을 수립하고 금메달을 수상한 한국의 장미란선수가 시상대에서 꽃다발을 흔들고있다. /연합뉴스

장미란역도 경기결과

여자 75kg 인상급	1차	2차	3차
인상	130kg	136kg	140kg
	세계기록	세계기록	세계기록
용상	170kg	183kg	186kg
	세계기록	세계기록	세계기록
합계	326kg 세계기록 수립		
종전기록: 무상상중국	합계기록 319kg		

장미란 보너스 ‘두둑’
현찰 1억5천만원 + α

2008 베이징올림픽에서 여자 역도 사상 첫 금메달을 안긴 장미란(25·고양시청)이 ‘세계 최고로 힘센 여자’라는 명예와 함께 두둑한 보너스를 받는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장미란에게는 1억5천만원이 약간 넘는 상금이 곧바로 현찰로 주어진다. 장미란은 일단 대한체육회가 책정한 메달 포상금 수혜자로 5천만원을 손에 넣는다.

소속 팀 고양시청으로부터 받는 액수는 더욱 크다. 고양시청은 이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 경우에는 6천만원, 은메달은 4천만원, 동메달은 2천만원의 각각 주기로 했고 세계신기록을 세웠기 때문에 포상금의 20%를 별도 수당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장미란의 금메달 보너스는 이것 뿐만이 아니다. 장미란은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기존 수령 연금과 별도로 4천500만원을 받는다. 따라서 장미란은 체육회와 고양시청, 공단 포상금으로 최소 1억5천500만원을 바로 손에 쥌 수 있다. 장미란은 또 공단의 경기력향상연구금 금메달 월정액으로 100만원(연금점수 90점)을 추가로 확보하게 된다.

그러나 정작 대한역도연맹으로부터는 정확한 얼마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



17일 베이징대학체육관에서 열린 탁구 여자 단체전 3-4위 결정전 한국과 일본의 경기에서 김경아·박미영 조가 일본을 꺾고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경아·당에서·박미영 日 완파

한국 여자탁구가 결승 진출 좌절 아쉬움을 딛고 기사화해 동메달을 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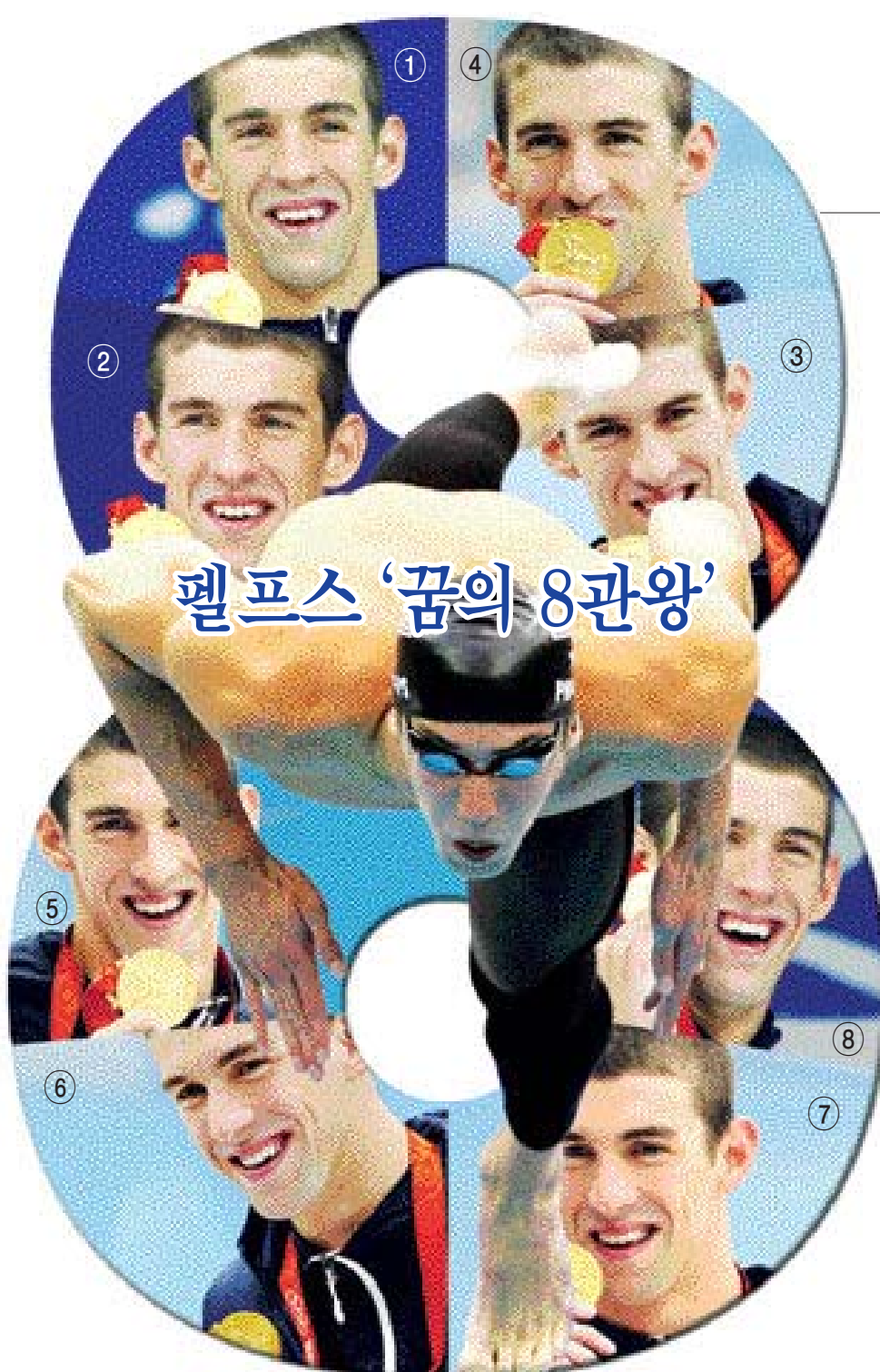
한국은 17일 베이징 대 체육관에서 열린 2008 베이징올림픽 탁구 여자 단체전 3위 결정전에서 김경아, 당에서(이상 대한항공), 박미영(삼성생명)을 앞세워 일본을 3-0으로 완파했다.

한국은 미국에 이어 일본까지 물리쳐 값진 동메달을 획득했다. 한국여자는 1988년 서울 대회 복식 금메달(현정화-양영자)로 시작된 올림픽 메달 전통을 이었다. 2004년 아테네 대회에선 복식 은메달(이은실-석은미), 단식 동메달(김경아)을 썼다.

예선 맞대결에서 히라노를 꺾어 자신감이 있었던 김경아는 1단식에서 끈질긴 커트로 범실을 유도해 기선을 잡았다. 김경아는 첫 세트 5-7 열세를 딛고 연속 5점을 몰아쳐 승부를 갈랐고 2세트에도 히라노의 잦은 범실에 편승해 11-4로 여유있게 이겼다. 3세트를 잃은 김경아는 4세트 듀스 접전을 12-10 승리로 이끌었다. 히라노는 회전량 많은 김경아의 커트에 애를 먹고 성급하게 스매싱을 시도하다 공이 잇따라 네트에 걸렸다. 2단식에 나선 당에서도 일본의 간판 후쿠하라 아이미 3-1로 눌렀다. 당에서는 3세트를 내줬을 뿐 시종 리더한 끝에 후쿠하라에게 예선에 이어 또 한번 패배를 안겼다. 기세가 오른 한국은 김경아-박미영 조가 히라노-후쿠오카 하루나 조를 3-0으로 일축하고 완승을 마무리, 동메달을 확정지었다.

男 벨기에 제압...4강 불씨 살려

남자하키 대표팀이 벨기에를 물리치고 4강 진출 가능성을 남겨놨다. 세계 5위 한국은 17일 베이징 올림픽 하키 남자 예선 A조 4차전 벨기에와 경기에서 3-1로 이겨 2승1패가 됐다.



펠프스 ‘꿈의 8관왕’

펠프스 종목별 시상 모습. ①개인혼영 400m(세계신) ②계영 800m(세계신) ③점영 200m(세계신) ④계영 400m(세계신) ⑤점영 100m ⑥자유형 200m(세계신) ⑦개인혼영 200m(세계신) ⑧혼계영 400m(세계신)

올림픽 최다관왕 영예



수영(경영)

‘수영 황제’ 마이클 펠프스(23·미국)가 꿈의 8관왕을 달성했다.

펠프스는 17일 오전 중국 베이징 국가아쿠아틱센터에서 펼쳐진 2008 베이징올림픽 수영 남자 혼계영 400m에서 3번째 점영 영자로 출전해 금메달을 따냈다. 펠프스를 포함해 애런 페어슬(배영)과 브랜든 핸슨(평영), 제이슨 레작(자유형)이 차례로 헤엄친 미국은 3분29초34로 가장 먼저 끝인하며 기존 세계 기록(3분30초68)까지 갈아치웠다.

지난 10일 개인혼영 400m에서 첫 금

메달을 따낸 것을 시작으로 계영 400m, 자유형 200m, 점영 200m, 계영 800m, 개인혼영 200m, 점영 100m 등 16일까지 7관왕을 이룬 펠프스는 1972년 뮌헨 대회에서 자국의 대선배인 마크 스피츠가 작성한 7관왕을 넘어서며 모든 종목 통틀어 단일 대회 최다관왕으로 우뚝 섰다.

기록도 대단했다. 점영 100m를 제외하고 6개 종목에서 모두 세계 기록을 작성한 펠프스는 마지막까지 세계 기록의 주인공이 됐다. 아테네 대회에서 6개의 금메달을 목에 건 펠프스는 이번 대회에서 8개를 추가하며 통산 금메달 14개로 개인 통산 최다 금메달을 기록하는 금자탑도 세우며 대회를 마무리했다.

박태환 있음에...한국수영 세계 9위

2008 베이징올림픽 수영(경영)이 17일 오전 4종목 결승전을 끝으로 9일 간의 열전을 마무리한 가운데 메달 순위에서 한국은 9위를 차지했다.

메달을 획득하며 순위가 들었다는 것 자체로 한국 수영은 이번 대회에서 올림픽 출전 사상 상상하기 어려운 성적을 거뒀다. 1964년 도쿄 올림픽에서 김봉조, 진장림 등 5명이 출전한 이래 한국 수영은 올림픽 성적과 거리가 멀었다.

4년 전 아테네 대회 때 남유선이 여자 개인혼영 400m에서 8명이 겨루는 결승에 올라 7위를 기록한 것이 최고였다.



이번에는 달랐다. 바로 ‘마린보이’ 박태환(19·단국대·시진) 효과를 톡톡히 봤다.

박태환은 남자 자유형 400m에서 한국 수영 사상 첫 메달을 금빛으로 장식하고, 자유형 200m에서는 은메달을 추가했다.